

김민환 개발 후기

개인 후기

처음 기획하고 구상할 때만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고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ex. github)도 있어서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무엇을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잘 안잡혀서 많이 불안했었는데 조원분들이 잘 따라주고 다들 본인이 맡은 바를 열심히 해주셔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걱정거리도 사라지고 어느순간부터는 이제 뭘 어떻게 바꾸고 뭘 더 추가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db와 연동하고 그걸 활용한 기능들이 생각보다 머리 아프고 어지럽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실력도 많이 향상했을거라 믿는다.

개발 후기

지금 개발한 웹사이트는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긴 기간이 아닌 짧은 기간 빠르게 개발한 거다보니 역시 사소한 버그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구현하고 싶었지만 구현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아쉬움이 느껴지면서도 그래도 처음 기획할때의 기능들은 전부 구현 성공해서 그래도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할 일을 끝냈다는 느낌도 받았다.